

카프시에 대한 一考察

—가난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 종 학

〈目 次〉

- | | |
|------------|-------------------|
| 1. 서론 | 2. 가난의 자각 |
| 3. 가난의 양상 | 4. 계몽적 화자와 증언적 화자 |
| 5. 카프시의 한계 | 6. 결론 |

1. 서 론

일제 식민지 통치시대에 있어서 가난의 문제는 국민 전체가 연관되는 핵심적인 문제였다. 일제는 자국의 산업화를 촉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 하기 이전부터 교묘하게 무역역조를 획책해왔고, 수탈과 착취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침내 채국주의적 식민지화를 성취시켰던 것이다. 당대 우리 나라는 경제의식이 미약했고, 경제활동이 부진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적 도전과 침략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통치 시대에 일제는 우리 나라의 민족 자본과 산업을 붕괴시키고 토지수탈 및 광산을 독점했으며 제일은행 조선지점을 통해서 금융을 장악하고 철도를 건설하여 자본 수출을 극대화 했다고 한다.¹⁾

한마디로 일제는 우리 나라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국민을 아사지경까지 빈궁화 시킴으로써 무력화시켜 동원 조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네들의 야욕을 충족시켜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당대의 가난의 문제는 국민의 전 계층에 걸친 전체적인 문제였으며 현실적으로 절박한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그것은 자연 현상이나 전시대로부터 계승된 문제이거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식민지 통치의 논리에 속하는 사회구조적 문제

1) 村上勝彦·정종문역 : 식민지 한울, 1984.

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문학이 현실과의 관계에서 현실적합성을 확보하고 사실성을 확립하여 민족 역사발전의 흐름을 바로 세워 나가고자 했을 때 그 문학은 구체성과 전형성을 확보하여 살아 있는 민족문학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학의 현실대응의 측면을 주목하여 생활의 문학이 되고자 혁신적인 사상과 이념에 근거한 카프시²⁾를 고찰하고자 한다. 당대의 현실 즉 국민의 생활에 관심을 가졌을 때, 빈곤의 문제가 가장 절박하고도 구체적인 문제였을 것이며, 빈곤의 실상과 원인을 적나라하게 폭로 통찰함으로써 빈곤을 야기시키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할 것이고, 그 모순을 깨트리기 위한 방법도 찾아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질곡 속에 얽매어 버린 우리 국민을 일깨움으로써 비판과 저항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그 힘을 조직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 야욕을 분쇄하고 자주 해방의 위업을 달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당대 현실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문학화하려 한 의식은 귀중한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문학의 새로운 일면이 확보되고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유익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일이다.

2. 가난의 자각

식민지 통치하에서 우리 국민은 통치의 객체가 되어 억압 수탈 착취되고 문화적으로 왜곡됨으로 해서 철저하게 소외된 민중³⁾으로 전락하였다. 이렇게 민중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그 전락의 실상을 깨달은 상태를 대자적 민중⁴⁾

2) 1920년대 이후에서부터 카프결성과 해체를 전후한 시기에 발표된 사회주의 사상과 그에 연관된 의식을 들어낸 모든 시들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함.

3) 民衆개념은 韓完相 民衆과 社會, (종로서적 1980)에 의거함.

4) 위의 책, p.26.

이라고 개념화 함을 볼 수 있다. 즉 전략의 구조적 실상을 자각한 민중이란 뜻이다.

민중은 깨달음으로써 역사의 객체에서 주체가 될 수 있고 역사를 변혁 발전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을 체념하거나 숙명으로 받아들여 정체에 빠질 때 그러한 상황은 비애나 우수의 정서로 변하게 되어 그것이 누적되면 민족 정서로서의 恨⁵⁾이 된다고 한다. 어쨌든 가난의 자각을 통해서 그 극복의 역사적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당위적 요청이었다. 그러나 이 요청의 양 변경은 사상되어야 한다. 즉 그 한쪽 변경은 한과 감상적 비애의 정서이고 다른 쪽 변경은 문학(시)의 이데올로기에의 봉사·예속이다. 당위적 요청이 양쪽 변경으로 이끌려 버리면 자각이 해소되어 버리거나 경직된 교조주의에 빠져 추상화 관념화 되어 버리게 된다. 즉 현실 파악의 진실성과 사실성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한녀름 금벗을 실타안코
거름주고 붓도다서
순집고 벌에잡어
잘지어논 이 담배를
맘대로 팔았다고 잡혀가는 이몸!
엇지타 이몸은
이 농사를 지었는고
살말막 험한쌍을 곡광이질 하여가며
고된줄 모르고 힘써 지어논
이제에 와서 목겨가는 이몸!

전매라는 그것이 생겨진 이제는
재물건도 못파는 사세이라
가난한 목숨이 굶을 수 없어서
다만 두 목금을 몰래 팔었다구

5) 고은: 「恨의 극복을 위하여」(恨鑄慶, 高銀外, 한국사회 연구 제2집, 한길사, 1984.)

붓들려가는 이몸!
오동마차는 안탄다드래도
이상투를 잘느게 될것이니
마을사람 보기에
붓그러운
오 말할수 업는 이몸!

가슴속 분노는
관솔불처럼 타오르고
짓밟힌 피덩이는
터지려는 폭탄가운데
스므하로 가치게된 이몸!"

시의 화자는 무식하고 가난한 농민으로서 다만 생존에 매달릴 뿐이다. 순박한 결단으로써 담배 두 묶음을 팔았을 뿐인데 밀고를 당했는지 당국에 알려지고 연행되어 '스므하로 가치고' 또한 '상투를 잘느게' 되었다는 것이다. 감탄사를 무려 다섯번이나 쓰면서 어이 없음과 제도적 모순을 절규하듯이 직설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여기에서 오히려 고발의 진실성과 사실성을 느낄 수 있다. 분노와 모순의 자각에 공감되기도 한다.

당대의 농민은 위의 시가 보여 주듯이 철저하고도 냉혹한 착취속에서 가을을 두려워 하며 마침내 餓死에 이르게 됨을 한탄한다. 그리고 巴人の 〈우리 四男妹〉⁷⁾에서는 가난 때문에 부모를 잃고 4男妹가 형은 독립투사로 감옥에 가고 둘째는 도적이 되어버렸으며 누이 동생은 색주가질 떠나버렸음을 보여 주게 된다.

당대 현실도 한마디로 屠獸場⁸⁾이었다함은 과장이 아니었을 것이다. 식민지와 폭정속의 인도⁹⁾와 아일랜드¹⁰⁾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6) 金昌述, 〈賣罰〉전문 (김성운편 카프全集 I, 시대평론, 1988), p.123, (〈朝鮮日報〉, 1926.1월 1일) (이하 카프詩全集 I, II는 全集 I, II로 통칭함)

7) 全集 I, p.115.

8) 全集 I, p.129.

9,10) 헨리·조지 지음, A.W. 매드센 옮김, 김성운옮김: 진보와 빈곤, (도서출판 무실, 1990.) pp.66~72. 참조.

당시 우리 민족의 8할이상이 농민이었으며, 농산물을 착취하고 토지를 수탈함으로 해서 농민을 고향에서 내 쫓고 마을을 황폐화 시켰음은 공지의 사실이며 마침내 농민은 제도의 모순을 자각하고 혁명의 가치를 들고자 하게 된다.

우리의 피땀을 검은 흙속에
한방울 한방울씩 쥐어박고
거둔 열매가 이것인가?
오오 불행에 우는 동무들아!
험벗고 굶주려서 울고만 잇슬려나?

三

동무여! 아직도 인종할 것인가?
이것을 보고도 참을 것인가?
우리는 참을대로 참고
소와 말가티 노력하였다.
그래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씩은이××(제도 — 필자주)를 그냥 둘것인가?

四

오오 크게 소리쳐 외치노니
동무들아! 모히라
펄펄 날리는
××귀쌀의 아래로
소리쳐서 모혀오라

씩어진 이 ××를
불살려 버리고
밝은 새날을 약속하는
진리의 씨움터에 모혀오라¹¹⁾

식민지 상황에서 인종은 비굴이며 용서는 무능이라는 자각이 끝내 이루어

11) 朴芽枝, 〈農軍行進曲(三)〉, 第二部, 三~四, 全集1, pp.277~ 278.

졌으며, 마침내××(혁명-필자주)의 깃발의 아래로 동지들을 규합하고자
외치게 된다.

동지여! 우리는
승리하여야 싸움이 끝난다
싸움이 끝나면 우리의 승리다.
우리의 귀발이 뿔뿔 날릴새
우리의 생명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희망은 굿세어진다.

철쇠에 얹혔든 우리네들은
자유의 동산에 춤추고
새로운 동산에 삶을 어들새
자유로운 생산은 비롯한다¹²⁾

이러한 경지가 아마 이데올로기적 관념성과 추상성의 경계인 듯하다. 시
적 문맥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힘과 진실성을 잃지는 않았다. 식민지 통치하
에서의 가난에의 자각은 여기까지는 와야할 것이다.

농민의 경우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자각의 과정은 동
일함을 볼 수 있다.

노동의 신성함을 관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노동에 찌들리고 임금을 착취
당함으로 가난의 노예가 되어 안식일의 교회 종소리를 듣고 하느님을 관념적
이고 거짓말장이라고 저주하기도 하며¹³⁾, 노동의 현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
를 받은 누이의 실상을 탄식하기도 하다가¹⁴⁾ 끝내는 기계를 세우고 쟁의를
일으키는¹⁵⁾ 데까지 이르게 된다. 나아가 젊은 노동자들이 밤마다 혁명을 모
의하고 이상을 꿈꾸는 피오닐¹⁶⁾이 되어 열정에 들뜨는 모습도 보이며, 수줍

12) 朴芽枝, 〈農軍行進曲〉(五), 第三部, 全集I

13) 金海剛, 〈職工의 노래〉, 全集I, p.219.

14) 金麗水, 〈午後여섯時콘트〉, 全集I, p.301.

15) 權煥, 〈停止한機械〉, 全集II, p.25.

16) 젊은 혁명투사(필자주).

은 누이가 당당한 혁명의 투사가 되었음¹⁷⁾을 오빠에게 자랑하는 변화를 시화 하기도 한다.

나는 勞働者다.
나는 부즈런이 일하는 者다.
나는 나의 힘을 먹는 者다.
그리고 自由의 建設을 韋치는者다.

사람들아 귀를 기우리지 안이 하여도
저- 工場의 機械소래가 들릴 것이다.
그것이 나의 韋침이다.
그리고 그 機械가 나의生命의 그 무엇이다.
나는 그機械에 목맨者이다.
그러나 機械에 목맨者라고 비웃지 마라.
나갓치 機械에 목맨者가 없으면
사람들아-來日이 없음을 아라라.

나는 勞働의 神聖함을 안다.
그러기에 나는 여태까지
조금도 反抗함이 없이
웃어던서 나의 피땀을 바쳐왔다.
그러나 現在勞働으로서 바든 報酬를 보아서는
나는 勞働의 神聖하다 함을 비웃는다.
나는 피땀을 흘려가며 어제까지 勞働하였다.
그러나 오날은 나의게 일이 없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
勞働者의 나의게 일이 없음이 누구의 罪인가.
부즈런이 일하는 者의게 먹을 것이 없음이
누구의 罪인가.

17) 姜敬愛, 〈옴바의 편지회답〉, 全集Ⅰ, p.107.

그 누구 나의 일을 뺏는가.
 그 누가 나의 밥을 뺏는가.
 아 現在의 勞働의 報酬는
 나를 굶기고 妻子를 굶긴다.
 그리고 勞働者 大衆을 굶긴다.
 안이! 굶기는 것이 안이라 죽인다.
 아—나의 벗 勞働者들아
 우리는 먹을것 조차 뺏기려는가?
 우리는 團結하자.

아—나는 勞働者다.
 建設의 主人公이다.
 나는 大衆의 나다.
 그리고 나는 未來에
 사는 勞働者이다.¹⁸⁾

앞의 農民의 자각에 대응되는 勞働者의 자각이라 볼 수 있는 시이다. 報酬에 관한한 식민지적 현실과 시적 진실사이에 괴리는 없다. 나아가 근대화 산업화의 과정에서 勞働의 神聖에 대한 이념에도 과장은 없다. 그리고 建設의 '主人公'이요 '大衆의 나'임에 대한 자각도 당위적이기는 하지만 시적 문맥에서 진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건설, 대중에 대한 인식의 추상성은 그대로 남겨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이 한계이다.

3. 가난의 양상

구조적인 수탈과 착취를 통해서 야기된 가난은 굶주림과 헐벗음, 유리 결식, 가족 이산과 가정 몰락, 패륜, 유이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형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농가, 마을, 도시의 가정 가족관계, 길거리의 모

18) 朴台欽, <나는 勞働者>, 全集 I, p.106.

습 등의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양상을 다양하게 하고 두드러지게 하고자 방법을 강구하였음을 볼 수 있다.

ㄱ) 남가트면 햇밥푸성귀
나혼자 소금에 피죽
그남아 못이어서
잇다금 걸으도다.

남들은 가을살이
나혼자 그저베옷
그남아 다떨어지고
구녕이 경성드못¹⁹⁾

ㄴ) 오막살이들 썰그러진 大門 안고서
것츠로 찬비를 마저
안으로 누령몰 흘니는 저속에
새맞쳐 이러나는 飢餓의 舞蹈를
누구라 알리오 아는이 업서-
그러나 짐짐이 숨은 觸醜는 일련마는
「貧窮은 祕密이라」고²⁰⁾

ㄷ) 이곳은 시골 農村이다
울타리도 업는 草家뎃집이
밝아벗은 山비탈에 여거저기,
보기에도 쓸쓸한 農村이다.²¹⁾

ㄹ) 벗은 참으로 짜똥하고나

19) 한별 <가을한습(賓農家)>, 全集 I, p.29.

20) 路草生, <비오는 貧村>, 全集1, p.48.

21) 金石松, <그대들은 나이다>, (시골), 全集1, p.99.

그러나 「입분」이는 곱흔배만 움켜쥐고 안졌네.
 봄은 참으로 오나부다.
 그러나 입분어머니는
 새삼스러히 눈물만 흘리네 —
 — 늙은 어머니 배곶흔 누의 살니라고
 소도적질 하다 붓들려가 죽은 아들을 생각하고…….
 이봄에 이벚에 이집안이
 왜 이다지도 쓸쓸하나.²²⁾

ㄱ) 침쫓가튼 바람이 새여들어
 추어잘수 업다고
 추이타는 나의 안해는
 날겨썩진 신문지 쪽을 오려
 다쓰러진 문구멍을
 언손으로 바릅니다.
 × ×
 젖안나면 어린것이
 배급하 보챌다고
 두어덩이 찬비지를
 어더다가 쓰립니다.²³⁾

위의 예는 농가의 가난의 참상과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ㄴ)의 경우는 飢餓가 끝내 餓死로 이어짐을 증언하고 있지만 그것은 비밀이라고 말하는 데서 가난의 외로움과 참상을 웅변하고 있다. ㄷ)은 가난 때문에 소도적질을 하던 아들을 잃고도 무감각한 가난의 비참과, 한 가정의 파탄을 냉정하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ㄹ)은 반드시 농촌의 실상은 아니겠으나 소박하면서도 절박한 가난의 실상을 잘 들어낸 예로 보여 진다.

22) 抱石, 〈農村의 詩〉, (叙事詩), 全集1, p.127.

23) 金海剛, 〈貧妻〉, 全集1, p.195.

ㄱ) 기름무든 옷자락에 귀계와 싸우지 안흐면
나에겐 빵이 돌아오지 안는다. 배는 곱흐다.
이날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니 편히 쉬어라.
그러나 일을 안하면 굶게 되나니 하나님 말씀도 거짓이다.²⁴⁾

ㄴ) 아 現在の 勞働의 報酬는
나를 굶기고 妻子를 굶긴다.
그리고 勞働大衆을 굶긴다.
안이! 굶기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
아-나의벗 勞働者들아
우리는 먹을 곳조차 뺏기려는가?

ㄷ) 消費難에 허덕이는 正祖의 洪水는
어데로 흘러가고
이골에는 날려버린 뱃저도
金싸락같이 귀할줄이야
더구나 저물도록 쌀골오고 돌아온
勤勞女工이-²⁵⁾

ㄹ) 줄임을 안고 일터차저 해매이다가
몸이지쳐 찬돌우에 힘업시 안즈니
가을바람에 지는 버드나무님이 엇개를치네
이세-마음의 괴로움
불에 타죽은들 이에서 더하라

두씨나 여원 한가족의 애츠런 목숨이
오늘도 줄여서 살어야 하는가
파리한 안해의 얼굴 우는 쌀의 모양
방울방울 눈물매치는 두눈에는

24) 金海剛, 〈識工의 노래〉

25) 宋順鎰, 〈女工〉, 全集Ⅱ, p.296.

돌도 석갓해 품속에 주어 싸고 십네²⁶⁾

위의 예는 노동자의 가난과, 노동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실직자의 가난을 증언하고 있다. ㄱ)은 일요일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종교와 현실간의 괴리를 통해 종교의 위선을 꼬집음으로서 가난의 실상을 들어내고자 함이 이채롭다. ㄴ)은 임금착취는 물론 일까지 박탈하는 자본가내지 공장주에 대한 고발과 저항을 들어내고 있다. ㄱ)~ㄴ) 모두 도시 근로자 및 소외된 貧者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들어내는 시로 제시할 수 있는 예들이다.

이들 예 이외에도 가난 때문에 간도로 이민갈 수 밖에 없는 실상에 대한 한탄²⁷⁾과 ‘소흥내’를 내는 <구루마쑤>, ‘한우님 아들들의 罪錄인 거러지’²⁸⁾를 부각시킴으로서 새로운 관심과 안목을 들어내고 있다.

부르주아지의 안목과 의식이 아닌, 카프시가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과 사회의 실상을 포괄적으로 진실하게 들어냄으로써 역사의 새로운 주체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는 당위적 요청에서 볼 때, 위에서 부각된 가난의 양상과 실상은 단편성과 현상성에 머물고 있으며, 일관된 주체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난의 실상을 단편적이거나 다양하게 들어내고 있음도 새로운 안목이요 지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4. 계몽적 화자와 증언적 화자

식민지 현실 가운데서 가난을 직접 체험하면서 마침내 그 실상을 통찰하고 구조적 인식의 자각에 이른 화자가 그 사실을 자신의 처지에서 증언하는 경우이거나, 지식인이면서 식민지 현실을 통찰하고, 스스로 노동자 농민의 입장이 되어 고발하고 반항하며 조직과 혁명을 호소하는 경우를 합쳐서 편의상 증언적 화자라고 개념화하고자 하며, 노동자 농민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26) 劉道順, 〈貧苦〉, 全集Ⅱ, p.296.

27) 李相和, 〈가장 悲통한 祈慾〉, 全集1, p.86.

28) 李相和, 〈街相〉, 全集1, p.104.

그들을 일깨우고자 하는 태도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화자를 계몽적 화자라고 개념화 하고자 한다. 실제로 시작품 가운데 그러한 화자의 양분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화자의 양상과 태도에 따라 시의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화자를 구분해 봄으로서 카프시의 본질에 더욱 가까이 접근 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카프시가 경계해야 할 두 변경이 한의 정서로 정체되는 일과 관념의 추상성으로 이데올로기에 예측되는 일이다.

계몽적 화자의 경우에 있어서 그의 이념우선과 사상의 공식성에 의해서 대상의 구체성을 놓치므로 추상화되게 되는것 같고, 증언적 화자의 경우 그의 사회적 상상력의 미흡함 때문에 체험이 한으로 정체되는 것 같다. 어쨌든 양자의 경우 모두 시가 지향해야 할 전형화 내지 형상화로 부터 거리가 멀어짐이 사실이다.

酒酩軍「쏘이! 쏘이!」
 燒酒는 실타!
 「위스키」도 가지가……
 좀더 毒한……毒한!
 「社會」酒를 가져오너라.
 어서「共產」酒……가져와!
 나는「世界人」이다!
 이놈 쏘이야 쏘이!

쏘이「自由와 平等으로」
 生命을 삼는다는
 子息들의 행세가
 쇠통 요모양이야!²⁹⁾

酒酩軍과 쏘이의 대화형식으로 구성된 시이다. 두사람은 서로 지적 수준은 다르지만 社會主義에 대한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쏘이는

29) 金石松, 〈酒酩軍〉, 全集1, p.43.

자유와 평등의 이념으로 계급적 차별성을 비판하고 酒酣軍은 계급의 주체성을 망각하고 부르조아적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주정하고 있다. 自由와 平等이라든지 보편적 사상으로서의 社會主義나 共產主義만으로는 구체성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아아 끌리는 農夫의 무리어
너희는 洋服님은 耆에게 끌리어
서울 長安을 이리로 저리로 끌리도다.
무엇에 놀란듯한 열썩진듯한 눈으로
비틀비틀 끌려 다님을 볼새에
아아 나는 너희를 爲해 눈물지노라

아아 끌리는 農夫의 무리어
너희의 天國인 별판에서 광이를 힘껏들었다 노호며
西山이 문혀저라고 소리치던 豪氣,
그 自由, 그 主翁의態度는 어이하였나.
서울 惡童들이 비웃는 소리에
눈이 동글어 끌려를 다니는고
아아 나는 너희를 爲해 눈물지노라.

아아 끌리는 農夫의 무리어
너희는 무엇을 보러 서울에 왔던고
너희의 膏血을 썩는 무리어 安樂이 기름이 흐르는 살이더냐
너희의 삶으로 된 糧食과
너희 안해들의 피로된 필육이
어딴로 간대를 차지 움일러냐
무엇을 찾는 듯한 너희 눈이어
나는 너희를 爲해 눈물지노라.

아아 洋服쟁이에게 끌리는 農夫의 무리어
제발 그의 뒤를 썩르지 말라.
네의 淳朴한 正直한 天性으로

저 손권 무리의 甘言에 속지도 말고
 「너는 나를 싸르라」하고 그가 號令할 때에
 「盜賊놈아 물러가라」하고 왜치라.
 갓을 밧두루 쓴 農夫들이어
 天下는 너희의 것이니까 一

아아 서울의 큰 거리로 畧리는 農夫여
 어서 집을 가라, 벌로 돌아가라
 南大門을 나설 때에 밧에서도 서울의 먼지를 켜어 버리라.
 兄弟여! 그것은 怨讐의 것이니라, 罪惡의 것이니라
 兄弟여 넓은 들에 모혀 그 크다란 밧들로 힘껏 썩을 굴르라
 땅이 큰 소리를 썩으로 켜어 世界의 不義를 흔들여 버리게 하라
 아아 世界의 創造者요, 養育者요, 維持者요 主人인 農夫여³⁰⁾

農夫를 어리석은 자로 서울사람을 洋服입은 도적놈으로 대비시키면서 農夫를 미망에서 벗어나 世界의 創造者요 養育者등인 자로 예찬한다고 해서 시적 진실을 획득할 수는 전혀 없다. 비참한 농부의 삶의 실상과 그 구조를 전혀 들어내 주지 못함은 화자의 태도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관념과 현실의 거리를 분명히 느끼게 할 뿐이다.

보느냐
 디평선(地平線) 저 一쪽저 一먼곳에
 환 一하게 빛나는 한줄기 광명(光明)을
 오 一현웃 입은 동모들이여!

二

그 빛춘
 삶의빛 목숨의 빛치어니
 오 一그빛치
 우리의 령혼우에 빛칠 때
 우리들은 노래하리라 춤추리라

30) 荇伊. 〈畧리는 農夫의 무리여〉. 全集1, p.69.

자유의 깃발을 팔팔 날리면서

三

오－씩씩한 장정(壯丁)들 늙은이 젊은이 할것 업시

팔다리 짓고 피똥은 알몸동이로

그 밋출 향하여

용장(勇壯)한 거름으로 내다름을

오－보고 잇다 나는 나는……”

이 정도의 비전에 현혹될 당대 독자는 없었으리라. 인격과 현실인식이 수반되지 않는 관념적 말놀이에 불과한 시가 아닌가. 구체성이 시의 본질임을 느낄 수 있는 아리러니칼한 시일 뿐이다.

저자 바닥에 박여 잇스면서

연못아! 얼마나 오래

너는 말엽시 지내왔느냐

오오 얼마나 오래

너는 色色이 것을

끊어 모으며 지내여 왔느냐!

－나은지 며칠 안되는

피투성이의 갓난 아이를

몇개나 몇개나

먹고 왔느냐

－가난한 젊은 수접은 계집애를

너는 몇번이나 네 속으로 섞여 들게 하얏다!

그리고 그 계집애의 늙은 어머니의

설어서 슬어서 毒먹고 죽은 모양을

너는 네 가슴에다 박어가지고 왔다!

31) 金海剛, 〈한줄기 光明〉, 全集1, p.181.

—네 우에 걸친 다리 우에서
 몸을 굽히고 속살거리든
 사내와 계집의 그림자도
 너는 마시어 가면서 지내어 왔다.

—계집과 씨안고 情死한 사내
 —눈보라치는 어느날 밤에 빠져어 죽은 불상한 거지,
 —主人에게 쫓기어난 젊은이, 그러구는
 스트라익크가 禍가 되어서 집 업시된 사람들의 눈물,
 —主權者에게 反抗한 勇士의 부르지즘
 —그러구는 나가튼 밤버러지의
 古今을 생각하고 내뱉는 한숨—

이것들의 形象과 그림자들을
 너는 속가티 싸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위를 흐르는 달빛은
 아아 몇 百年이나 오래인 동안을
 밝고 넘어서 지내어 갔느냐

연못아! 오래동안 너는 담을고 왔다!

아아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너는 얼마나 크나큰 이악이를 하느냐,
 --오늘 이 밤에
 건너편에 서 잇는 한개의 불빛이
 너에게 열쇠를 준 것이다!—
 오오, 너는 얼마나 큰 이악이를 하고 잇느냐
 지금
 나는 너에게 귀를 기울여—

아아, 들어라 이 크나큰 부르지즘을!¹²⁾

32) 金其鎭, 〈한개의 불빛〉, (全集1), p.56.

위의 시에 있어서 '저자'와 '연못'의 중의성과 '건너편에 서 있는 한개의 불빛'의 상징성이 상호 연관되어 대응 되면서 여러 사실들의 나열로서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에 나열되는 사실들은 불빛이 없을 때의 어두운 현실의 전형이라 할 만한 대표성을 가진다. 시인은 스스로 연못이 되고 그곳에 빠져 죽은 시체가 되어 어두운 과거를 증언하는 사실성을 실감나게 형상화해 주고 있다. 위의 시에서 사실들에 대한 충실한 나열이 없었다면 관념성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견고한 증언적 화자가 됨으로써 구체성과 따라서 형상성을 확보하는 실례를 대면할 수 있는 시로 생각된다.

5. 카프시의 한계

사회주의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실현에 연관된 시는 보편적으로 1) 전체주의화 2) 상황의 극단화 3) 획일화 등의 한계를 노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 혁명의 성취를 위해서 대중을 자각·선동시키는 일을 위한 수단으로 문학이 봉사해야 하기 때문에 문학의 독자성은 인정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전체의 부분이 됨으로 전체주의화 될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현실을 비판 부정하는 미래 지향적 혁명의 사상과 신념 때문에 문학도 결국 불세비키화에 귀착되게 되고 현실 인식도 경직된 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사고와 감정도 경직성과 격렬성을 노정하게 되며 상황을 극단화시킴으로 혁명성을 띠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회주의 사상에 연관된 시는 혁명의 당위성과 그 성취를 위한 규범을 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성과 생활현실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며 따라서 사고와 정서도 획일화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 전문성과 지속성의 결여

카프계열의 시는 사회주의 문학이론이 정립되는 과정을 추구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창작 방법과 미학의 확립이 미진한 상태에서의 비전문성을 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식이 미흡하거나 시의 내용이 극단적으로 추상화되어 나타남이 그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형식이 모색되어 서사형식, 서술형식, 즉흥시 형식, 회곡형식, 등의 양상을 보이거나 어느

하나도 끝까지 모색되지 못하고 몇몇 시인에 의해서 한 두 편의 실험에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식민지 현실과 대결해야 하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중도에 좌절한 시인도 많으며, 혁명적 의식과 그 실천에 성격적인 부적응의 시인도 많아서 전향하는 경우도 속출하였다. 시로서 당대 현실과 사회주의 사상 및 그 이데올로기를 포괄할 수 있어야 했을 것인데 그 역으로 시가 새로운 사회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되고 거기에 부합하고자 했기 때문에 일면성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식민지 통치의 강압에 눌리어 운동의 시기가 성숙한 결실을 신출하기에는 극히 부족한 형편에 머물고 말았다.

2) 맞서야 할 대상의 모호성

실제로 카프계열의 시중에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태도로 일체의 식민지 통치를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그 구조를 지배조종하는 당사자에 저항한 시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실의 생활을 반영해야 할 시가 현실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개념의 수준에 머물고 말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소해질 수 밖에 없을 것임도 자명하다.

아—이쌍의 젊은 동무들아……

삶의 힘이 가슴에 펄펄 뛰는 젊은 勇士들이여!

빨간 하프 에 검푸른 맥이 힘있게 뛰노는

이 江山의 썩썩한 아들아! 또 쌍아!

피와 힘의 所有者야?

우리는 이 쌍의 일꾼이라네! 젊은이라네

젊은 피가 心臟에 쏘는 이쌍의 젊은이들아!

들어라—저—헛치는 소래를—그리고 또보아라

실음업는 彷徨과 뜻업시 헤매이는 무리들!

그리고 또거짓업시 呻吟하고 哀訴하는 이쌍의 生靈을!³³⁾

(此間八行 削除)

—한 만은 서울을 썬나 싸움의 터로 가면서—

‘한만흔 서울을 썬나 싸움의 터로 가면서’라는 부제를 말미에 달고 있는

33) 赤波. 〈젊은이의 뱃침〉, 全集Ⅱ, p.96.

이시는 싸움의 구체적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싸움의 목적은 시의 문맥상 끝 두행에 제시된 ‘무리와 生靈’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터인데 떠나서 싸운다고 함으로써 싸움의 현장성의 적합성을 상실하고 싸움의 관념성을 노정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헤매이는 무리’ 呻吟하고 哀訴하는 異邦의 生靈’을 들어냄으로써 현실을 직시하는 의미는 충분히 보증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만 제시되고 그러한 결과를 산출한 구조적 모순은 은폐되어 있으며 따라서 싸움은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는 데서 추상화 되어 버린 감이 있게 된다.

아들아 너도 每日報道되는 新聞을 보고도 알겠지만
한줄기 生命을 건져내기 爲하야
우리 貧弱한 農民들이
피땀 흘려서 水田을 開拓하여 낫치 안었드랬나……
그런중 싸닭업시 안인 밤중에 내어쫓츠니
아! 우리는 어대로 가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工場에 일을 맞치고
오늘 밤 客窓에 누어 北滿에 잇는 父母와
불상한 朝鮮同胞를 爲하야 눈물을 뿌리지!
아들아 우리의 압길은 이와갓치 망연하고나



아! 아들아 참자 그래도 우리는 참자.
(此間二行削除)
터져 나오는 우름 소사 나오는 눈물
그놈의 賤待 그놈의 虐待 모도다 참고 익여 싸호자!
아! 아들아 工場의 勞働者인 나의 아들아
싸호자 힘써 싸호자……
일하자 힘써 일하자……¹¹⁾

34) 金明順, 〈勞働者인 나의 아들아〉, 全集Ⅱ, p.96.

피땀 흘려 개간한 논을 빼앗기고 쫓겨난 농민이 되어버린 아버지가 조선동포의 민족적 모순을 파악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실상을 인내로서 극복하자고 타이른다. 그러면서도 힘써 싸우자고 격려한다. 이러한 모순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참고 일하며 희생없는 내일을 기다리는 현실 순응의 인내를 싸움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된다. 이럴 때의 싸움이란 모호하고 대상없는 공소한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3) 가난에 대한 인식의 현상성과 단순성

식민지 통치의 숨은 논리가 궁핍화와 우민화를 통한 동화의 달성에 있었다고 볼 때 가난의 현상은 그 이면에 냉혹한 수탈, 착취의 구조가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그러나 카프시에서는 그러한 내면의 깊이에 이르고자 하는 치열함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있음이 일반적 경향이다. 앞에서도 보아온 바와 같이 가난한 실상이 현상적인 수준에서만 한탄되거나 고발되고 있으며 막연히 싸우자는 구호로 그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식민지 폭압의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현실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일이지는 하지만 그러나 카프시가 단순한 문화운동의 일환이 아니고 사회모순을 제거함으로써 이상사회 건설을 목표로한 혁명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때 혁명의 구호와 이념은 여기에서 무력하고 공소해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식민지 통치하에서의 수탈과 착취의 현황은 치밀하고도 다양할 것인데 시에 표출된 그 양상은 거의 구체성을 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지도 못한 실정이다. 노동자 농민에 대한 수탈과 착취 외에 민족자본을 괴멸시킨다든지, 광산을 독점함은 물론 금융을 식민지화는 일과 함께 철도를 부설하여 착취를 더욱 효율화하는 점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대응했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시인들의 사회의식의 불철저 내지 결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 우민화 정책과 문화주의의 위장전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이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6. 결 론

일제 식민지 통치가 ① 반일 운동의 철저한 압살, ② 민족 경제 발전의 억제와 수탈의 강화, ③ 한국인의 민족문화, 민족성 말살 ④ 대륙침략을 위

한 발판의 구축에 있었다.³⁵⁾ 함은 공지의 사실이지만 이러한 실상을 민족과 계급간의 모순으로 파악하여 이를 문학에서 문제삼았다는 것은 민족의 자주 독립과 이상사회 건설이라는 총체성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학의 근대화 과정에서 보더라도 충분한 시의성과 당연성이 있으며 좀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마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것이 반역적 혁신의 이론, 금기시 해야할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새로운 인식의 틀이며 실천의 추진력인 것이다. 다만 그것이 내함하고 있는 관념성 경직된 경향성은 극복되어야 할 일임은 명심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카프시를 새로운 인식을 열어 주는 유용한 인식의 거울로 보았으며, 그를 통해 외면되거나 감추어진 민족과 사회의 실상 및 매몰된 인간성이 얼마나 새롭게 부각되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진실하고 인간애적 도덕성과 통하는지에 관심을 가지려고 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난의 문제를 구심점으로 하여 그 형상화의 실상과 그것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카프시를 시로서 이해해 보고자 했다.

그에 따라 얻어진 결론은 ① 카프시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현실 적합을 가지며 ② 들어내어야 할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사회적 진실을 많이 밝혔으나 ③ 일제 시대하라는 상황과 활동기간의 짧았음 및 담당자의 비 전문가적 시인 의식 등으로 인해 충분히 넓혀지고 깊어지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며 ④ 카프시는 카프시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계관 및 문학관을 준거틀로 하여 살펴져야 한다는 점이다.

35) 姜東鎭: 「文化主義의 기본성격」, (한국사회연구 한길사, 1984).